

聖句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람이
없고 애송하는것이냐 곡
하는것이냐 아픈것이 다
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
음것들이 다 지나갔음이
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發行所 63-11-20
福音新聞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25 2623番
編輯人 吳 允 台 澤
主 筆 田 榮

福音新聞
THE POK EUM SHIN MUN

社説
眞理の世界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
게한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
나」 한 의문을 발한지 이천년
이 지난 오늘날에도 오히려
진리는 들어나지 아니하고 세
계는 그냥 거짓과 암흑과 불
의에서 움직이고 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으니」를 위
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
에 대하여 증거하려함이로다」
하고 친히 부르짖으시고 이
를 위하여 용감히 싸우다가
이를 위하여 희생을 당하신으
로 진리의 빛을 암흑한 인간
세상에 찬란하게 비추셨으나
어리석고 악한 인간은 아직도
진리를 찾지 못하고 어둠과

혼돈 가운데 헤매며 신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 슬프다 이 진리의 빛을 가
장 많이 받은 신자와 교회안
에 아직도 거짓과 죄악이 퍼
나지 아니하고 이 진리의 은
혜와 감화를 가장 많이 받은
기독교국에서 진리에 어그러진
일을 감행하고 선(善)을 꾸
미고 불의와 죄를 범하니 이
진실로 통탄할 일이 아니냐.
주를 따르다는 신자가 예수
께서 몸소 가르치시고 몸소
증거하신 진리를 참으로 깨닫
지 못하고 도리어 진리를 거스
리는 행동을 하며 설혹 이 진

리를 안다 할지라도 진리를 따
라 행치 아니하며 이 진리를
증거하며 행하기에 그 몸을
바치는 자 극히 드물지 아니하
나 이 진리의 도로 그 국민이
살아오고 이 귀한 복을으로
세계에 전하는 역할을 한 국
민이 이 진리를 거역하는 일
을 행하고 또는 이 진리로
터들 삼아 세워진 나라배성이
이 진리를 행치 못하고 거짓과
을지 못한 일을 하니 저들은
결국 세계에 행복을 가져오지
못하고 불행과 저수를 주게 되
는 것이 아니냐.
× 그리스도의 진리는 절대 정
의와 절대사랑이요 따라서 절
대 진실일 것이니 무엇 자기를
위하여 온갖 거저된 속책으로

남을 의용하고 남을 희생하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를 거스리
고 하나님께 대항을 마치는
세상 우주를 파멸에 몰아넣는
것이다.
무릇 내 이익을 위하여 내
집과 내당을 위하여 더구나
사람으로 인하여 대의를 몰각
하고 모략과 음해를 일삼는
자는 하나님께 가장 가증한
대적이요 인류의 대적이요.
우리를 위한다고 하고 음
하고 하면서 정의의 빛을 핑
화를 메치면서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해롭게 하는 일을 하는
영국사람 따위는 진실로 진리의
원수요 하나님의 대적이요
원수요 만일 미국도 이제까지
우리를 돕고 평화를 위하여
싸우다가 우리에게 불리하고

우리를 파멸에 이끌려는 결
과를 맺는다면 또한 같은 비
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론으로 평화와 해방을 말
하면서 진리와 정의의 가장 하
고 천의 장막 속에서 잦은 음
한 모략과 침략과 모든 악
한 죄악을 감행하는 공산도
당이 진리의 원수요 세계의
파괴자로서 심판을 받을 것은
다시 말할 것 없거니와 또한
평으로 그리스도의 무리로 자
임하면서 진실한 태도가 없고
진리의 생물을 하지 못하는 개
인이나 그리스도 국으로 세
워지게 자유세계를 표방하고
정의의 주창하면서 속으로 악
소민족의 자유를 빼앗고 진리
와 정의의 거스리는 일을 하
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진노

六二五動亂三週年紀念
民族蹶起民衆大會

기묘한 재일본 대한민국의
주요한 주축의 六二五 동란
三週年 기념 민족결기민중대회는
예정대로 지난 六月二十五日 정
오十二時에 히비야 공회당에서
마침 일기조차 좋아서 관동지
방 각지에서 모여드는 수천명의
회중이 회합한 가운데 열리게 되
었다.
문자 제1부인 국군과 유엔

第三社會의實現에努力
共産主義와資本主義를克服
멕시코 캐롤릭의聲明
멕시코에서 MC가 보도한바
에 의하면 멕시코 사회비서국
장은 프랑코에오十三號 기념 성
명을 발표하였는데 캐롤릭신도
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극
복초월하여 제3의 사회를 구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의
요지와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현대 세계가 직면한 문제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하는
그들 중에서도 어느 하나
나를 선택할 것이 아니고 만
민의 권리가 존중을 받을수
있는 진정한 정의와 사랑의

군의 전사자에 대한 추도식으
로 시작하여 중종의장 김광남
(金光男) 씨의 간담하고 힘있
는 석사가 있은후에 독경이
있었고 대표부 중종(中總) 한
정(韓正) 군인회(軍人會) 하청
(學同) 부회(婦人會)의 청
통하고 눈물겨운 초도사가 차
레도 끝났고 다음에 민단관동
지구 본부 단장들이 차례로

충성의 감사를 표하며 또한
회의에 있는 우리들도 조국통
일과 부흥건설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것과 외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금도와 독립국가
국인으로서의 책임을 잊지말기
를 바란다는 요지의 말씀이
있었고 서석국 공사와 중화인
민공사의 내빈 축하를 지나
정철(鄭哲) 씨의 「조선평화공세
와 유전협정」이란 문제의 기념
강연에 요지다 같은 말씀이
있었다.

關西地方綜合版
動亂紀念日新講會
관서지방에서는 이미
보도한바와 같이 六月二
十五日 동란기념일에 구
국기대회를 大阪에開당에
서 개최하였다.
정각 오전十時에 전영
복목사의 사회로 개최되
었는데 정인숙목사와 임
성부장로의 기도가 있었
고 이종현목사의 「구국의
결심」이라는 제목하의 설교가
있었다. 김원치, 박남철, 유석준
씨의 기도도 인도되어 참석한
九百여명 신도는 모두 「조국과
민족의 구원을 하느님께 간구
하기도」 하였다. 이 집회에

참가한 諸君은 神戶、川崎、
大阪、京都、西宮、北宮、平野五
處에서였다.
關西地方修養會開催
時日 七月二十一日(二十二日)
場所 出羽洲佐江 Y 修養館
費用 千二百十圓(京都往復旅費)
集會場所 京都藤東出口正門 앞
二十日午前十時까지 集合
參加 희망자는 각교회 會
임자에게 七月十五日까지
 연락하고 十九日까지 京都
교회 田崎사에게 연락할
것이고 성경 찬송가 및
기장 세수기구 수염복을
준비할것
關西地方會教育部長 白

教師講習會希望者에게
 觀者지방에서는 前日 개최한
 「하기가동학교 교사합성경
 회」를 금년에는 중지하고 강
 습회장은 七月二十一日까지
 西宮聖和女大에서 개최되는 일
 본기독교교회협의회 주최인 교회
 학교교사강습회에 추천하라
 한다 그 강습회에 추천은 하
 나비용(약二千圓)은 참가자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게되었다
 희망자들을 위하여 안내서를
 각교회에 이미 배부하였다

信徒倍加運動積極推進
 총회전도국에서는 六月二十三
 日 오후二時에 大阪府堺市에서

에서 전도국회를 개최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고 일
 반의 협력을 요청하게 되었다
 (1) 신도배가운동을 일층 적극적
 으로 추진할 것.
 (2) 배가운동을 상반기 중간보고를
 수집할 것.
 (3) 八月중순에 東京府 개최되는
 세계전도회의에 참석차로 한
 국에서 오시는 교역자들을 맞
 이하여 각지방회 단위로서
 특별전도집회를 개최할 것
 (4) 신도배가운동을 더욱 성숙한
 계 전개하기 위하여 배가전
 도표를 배부하고 일본신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가할 것

大阪北部教會消息
 前日春季伝道會에 諸教團長이
 中心이되어 三日間毎日 二十名
 이 動員되어 各地域間家庭을
 全部戶別訪問傳道하였다.
 ○ 傳道會 每日平均九十五名の 會衆
 으로 決心者도 毎夜六、七名이
 있었음 傳道會 田永福 목사
 三藏伝道所를 開設 기도하고
 傳道會中 六日次主日 開教禮
 拜後 毎本曜日伝道會會衆 하는
 現在 每年 十六、七名 主日
 二十五名の 會衆하고 있다.
 ○ 傳道會 傳道會에 金元治 목사
 講義로 毎夜三十名 會衆、禮堂
 나옴 十五人 平均의 大盛況
 이었다.

人事
 ○ 安樂使署사 觀本教會建築用費
 로 東京訪問次來社
 ○ 道漢傳道사 東京教會
 伝道集講義로 一週間東京府
 留中 本社來訪
 ○ 祇園長老 지난 六月二十九日
 渡日 本社來訪
 ○ 李聖玉氏(京都教會執事) 六月
 二十九日 別世



고 마렌코후가 나선이후에 나
 타난 소련의 평화공세의 실현
 이요 물자로 아이젠하워가 아
 세아의 일은 아세아인에게 말
 리는 극동정책의 실시가 분
 명하다. 그는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관 한국전반을 종결시키고 미
 군을 귀국시키겠다는 약속을
 실현하기에는 소련평화공세의
 유전현정요구는 가장 좋은 기
 회였다. 셋째로 영국의 압력이
 내 대전이후에 인도등 이란
 여러서민지를 잃어버려서 고아
 처럼 된 영국은 한국전란으로
 그의 최후의 생명선인 중국의
 상권을 잃어버리게된 까닭에
 그들은 평화를 가장하고 한국
 를 면치못할것이다.

은 중공부단장 배동희씨가 우
 리수도의 황폐상을 말하고 유
 전반대의 대모는 그냥 계속되
 고 있는데 마침 자기가 목격
 한바 곳은비를 맞으며부르짖고
 행진하는 여학생들은 서울신문
 사앞에와서 주저앉아서 대성통
 곡을 하는것은 눈물없이 볼수
 없었다는 본국시찰단이 있었고
 미대통령에게 보내는 대회의
 메시지와 민중대회 의결이와
 미국과 영국 대사관과 국련교
 사령관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채택하고 만세삼창으로 폐회
 한후에 회중은 버스 오십대를
 분승하고 태극기를 날리면서
 미국과 영국 대사관 국련교사
 정부에 가서 메시지를 전달하
 였다.

심자대회」에 출석하고 돌아
 오는 길에 당지에 들렀다가
 지난六月二十四日 귀국하였다
 ○ 본대총재 양주삼박사에게
 기대가 많았으나 불행히 사
 별때에 남치당하고 그 후일
 자 모씨는 복망지고 심해졌
 으나 구박사는자신적이상
 의 회고과 배반명회를 모
 집하고 일을 잘하신다고 한
 다○안되는 일 심해하는 사
 람만 많은 우리 사회에 구
 종제의 이만한 성공도 고맙
 고 기쁜 일이다. 이런때에
 가장 귀한 적십자사업이 크
 게 행동하기를 바란다.
 ○일본에 있는 우리교회에서
 요세신도 배가운동(信徒倍加
 運動)을 전개하여 각교회에
 서 서로 목사를 바꾸어 특
 별집회를 열심으로 하고있는
 것은 그마음 일이다. 그러나
 들에 박힌 집회운동으로 몇
 날씩 설교예배를 보아서 전
 도했다는 성적과 기록을 지
 을려고만 할것이 아니라 동포
 요 형제자매의 심령의 운명
 을 생각하여 그들을 구원으
 로 이끌고야 말겠다는 간절
 한 마음으로 마치 대의사가
 선거운동을 할때에 유권자를
 몇번이고 찾아가는것같은 성
 의와 열심으로 찾고 권해서
 기여이 끌고 그리고 한사람
 의 영혼을 위하여 아끼며
 기도하고 노력하는 입이 있
 어야 될것이다. 온저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에일들 가하자

그러면 세계에 진리는 소멸
 되고 그리스도가 물소 진리를
 위하여 싸우다가 이를 증거하
 기위하여 흘리신 피는 헛된데
 돌아가고 말 것인가 아니다 참
 된 진리의 사자는 소위 유력
 한 신자가 아니요 소위 기독교
 교인 강국이 아니요 차라리
 약한 여러아이요 무명신자 무
 명교회중에 있으며 진리의 수
 호자로 실행자는 하나남자신이
 니 예수께서 피로 증거하신
 진리의 세계가 실현될 날이
 멀지 아니할 줄 믿는다 우리가
 못하지 못한 방법으로 못하지 못
 한가운데 진리의 세계가 나타
 날것이다.

아메리카 국방성은 한국동란
 三년간에손해 추정숫자를 다음
 과 같이 발표하였다.
 한국군대는 현재 五十萬인데
 아메리카는 그 五分之三의 三
 十萬名이 참가하고 三年간의
 아메리카 전쟁비용은 약 百五
 十億달러에 달한다.
 아메리카군대의 손실은 十三
 萬六千八百六十二名이다(전사자
 二萬四千三百八十六名이고 부상
 者 九萬九千五百零四名 行방불명된
 者 八千六百八十二名 포로二千
 七百四명)이다.
 공산군측의 손해는 아메리카

美國은五百五十萬動員
共産側損失百八十萬推定
 군대손실의 十배로 보는데 百
 三十四萬七千의 전사 혹은 부
 상자가 있었다 하며 일반
 인 살상자 四十萬六千名이다.
 한국국민의 살상자는 약百萬
 명이고 피난민은 남북을 합하
 여 三百萬내지 四百萬名이다.
 동란에 동원된 미군은五百五
 十萬名이상었는데 극동방면에 배
 치된 이두수만 六六十萬名 동
 란이 이러났던 처음 한주간은
 五百四十名이 파견되었으나 지
 금은 三十萬에 달했다.현재
 극동 방면에 있는 아메리카군
 대는 五十一萬名이라 한다.

休戰反對의眞意는那邊에 基督者는戰爭? 平和?

韓日基督者懇談會

처참한 한국의 천관은 그
三주년 되던날도 하늘의 평화
적 변모도 없이 지난,二十六
日 일본 W.C.C 회의실에서 한일
기독교 유지간담회가 열렸다.
그 목적은 한국 이대통령의
포로석방과 한국국민의 휴전에
대한 태도 더욱더 그리스도인
들의 활동에 관한 솔직한 이
견을 환담하자는 W.C.C(주최측)
의 이향에서 모인것이였다. 따
라서 일본측으로서도 금번 한
국전란으로 기독교와 공산주의
와의 문제가 어떤 정도로 접
촉이 되었느냐 하는 점을 한
국인측에 묻고자 함이 었다.
이제 그 간담회의 기록에
따라 총괄적으로 소개하려한다

南北基督者의立場

自由를 찾아彷徨

이런전란 전후의 한국기독교
인들의 입장은 어떤정도 었는
지 우리는 해방전에 일본통치
하에서 한국인기독교인들이 말
로 다 못할 탄압을 받았던 사
실을 아는데 그때에도 순교를
당하면서 교회회를 지켰을줄로
늘에도 그 절개를 지켰을줄로
아는데? (일본측)

한국기독교교회 교세의 대부분
은 경기도 이북에 었 었으나
현재는 이남에 었다. 북한공산
치하에서 해방후 신앙을 지켜
보려고 하였으나 탄압이 일지
시 대포다 포로하게 강압하여지
기에 자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건달수 었었다. 형식적인 기독교
교민주동맹은 지금도 었으나
신교의자유를 정치적 혹은 사
평화에 침략을 한 일이 었다

西南地方傳道旅行記(上)

豐橋教會傳道師 鄭正희

부인전도회연합회 순회전도개
회에 따라 六月一日부터 두주
간 김원치목사와 함께 서남지
방을 순회한 전도하신 豐橋
교회 정경의전도사는 다음과같
은 전도일지를 보내왔다.
六月一日 장마철 이라는 예
고인지 이른아침 부터 빗방이
나리신다. 도요하시(豊橋)역에서
오후 두시반에 규슈미야코조
로 가는 아소호를 탔다. 여섯
시간반을 달린 뒤 기차는 大阪
에 멈추우고 도로차(同勞者)
金원치목사를 대위준다. 저녁七
시다 서남지방 활동계획을 기

한국은 인명과 재산을 비롯하
여 산업 문화시설에 이르기까
지 문자 그대로 처참한 손상을
받았다. 그러나 단일민족이
번기회에 통일조국이 실현되
를 바라고 비장한 인내를 하
여왔으나 또 역시 약소민족의
의사는 무시될 당하고三八線
을 그대로 틀어박고 아니라 자유
한국의 국민(反共포로)까지
공산주의진영에 넘겨 주게되었
으니 이런 휴전은 반대할수
밖에 없게된것이다. 그 표현이
포로석방 휴전반대대모임 나타
난 것이다. (한국측 담변)

상면으로 위협하는데는 대항할
수도 없었다. 혹자들은 그 결과
협력하였으나 이용가치가 없게
되면 어느틈엔지 형적을 잃어
하였다(金포?) 그런 마수(魔
手)가 교회에 침입할때 교회
는 반항하기는 고사하고 교회
자체의 존속이 곤란하여 보다
더 자유로운 예배처소를 찾아
다니다

捕虜釋放은當然한處事

弱少民族良心의絶叫

한국인은 예로부터 정치적이
라고하나 우리 견해로서는 이
번 이대통령의 휴전반대 태도
와 반공포로 석방문제등으로
남북통일문제가 더욱 예단하기
어려움게 보는데 한국기독교신
우(信友)들은 어떻게 생각 하
겠나

집회장소에는 안목사님과 신
도들의 안내로 약七十명의 형
제자매들이 몰렸다. 김목사께서
「한국민족을 패망케 하는 술
담배의 해독에 관한 강연을
하시고 국가와 개인의 살아날
길은 예를 믿고 양 믿는데
있다」고 역설 하셨다.
六月三日 오전에는 구마모도
교회당 건축과 전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오후에는 청년남
녀들을 모시고 김목사의 신앙
청년운동에 관한 이야기가 있
었고 밤집회 전에 가정 방문
도 하였다. 밤에는 八시에 개
회 하였는데 六十명가량 몰렸
다. 전도강연 끝난후 예수믿기
로 작정한 이가 七명인가 있
었다. 우리의 설명이 불완전하

일본기독교 본향에서 었에서
는 거성이 었던 우찌무라간조
(内村鑑三)씨의 전집은 지
금 열기도 어려운데 무슨 사
람은 점점 더하고 었다.
이 기회에 이와나미서점에서
는 一年반계획으로 그의 저작
집을 출판하고 있는데 그 제
권을 독파한 동지사(同志社
대학) 조교수 오이티스케리씨는
요지 다음과 같은 독후감(讀
後感)을 발표하였다.
우찌무라간조-적작집 제一卷
이 나왔는데 이것은 무조건으
로 일본사람이면 양반신자니 불
신자니 할것 없이 첫장 부터
끝까지 읽고 생각하고 소화하
나 하고 넘친다. 사회적으로는
전제인 구호면에 주로 피난민
과 고아원사업에 노력하고 있
는것이다. (한국측)

고 었을니까 (일본측)
우리는 한국의 태도가 국제
조약상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
른다. 그러나 한국국민이 현재
와 같은 휴전에 반대하는 것
과 반공포로를 석방하였다는
것은 민족적으로 보아서 당연
하였나 하나 남께서는 필요하신
사람을 이번 기회에 부르실줄
안다.
이곳 교회는 남녀집사 네분
이 안목사님을 중심하여 열심
으로 활동하고 있다. 곧공하면
서도 예배당을 세우려고 준비
하고 었었다.
六月四日 오늘도 비가 온다
그런 불편한 때에 우리의 열
심과 인내와 사랑은 시련을
받는 것이다. 구마모도 교우들의
전집한 전송을 받고 후쿠오까
(福岡)로 향하였다. 최영모장
로남의 한대를 받고 예배당에
여장을 풀었다.
밤은 七時半에 집회를 열었
다. 동인 사람은 二十四명인가
되었는데 비오기 때문에 세사

주기를 돌고 싶은 생각
이 간절하다. 그러나 우짜루
의 강기었고 단도직입적인
카로운 문장은 쉽게 이해하
는 어려울 것이다. 일본에서
탄생한 미국인이 나는 이 책
민족문제를 평화로와 어떠한
평론가가 최근에는 많이 이러
나고 있는데 그런자들은 우짜
라고 많은 말이 인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잘 읽
어보면 우짜루라는 그렇게 인

信仰이 獨立의 根本

內村鑑三著作集
第一卷 讀後感

에서 아메리카와 아메리카적
기독교에 대한 비판에 귀가
저리고 일곱에 부꾸러운 화가
가 나를 괴롭게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일본에 환영
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인도상으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후의 문제발전에 있어서도
한국태도만을 비난하지 말고
세계가 국면에 올바른 발전을
유하여 약소민족도 공정하게
취급을 받도록 되기를 바란다
국면에 올지니 비를 보내고 있
는 세계교회협의회(WCC)도
각국에서 이러나는 국제문제와
민족문제를 옹호하 조자 연구
하여 제의하기를 바란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한국문제가 기
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
독교양심으로 세계기독교자들에게
사태의 정당한 판단을 바라며
한국문제를 한국이라는 한지
방문제로 생각지 말기를 부인
하여 호소하는 것이다. 우리

공산주의를 옹호하나라 부정
당한 것에는 시정을 강경하게
요구하여 한다는 것을 우리
나라 전장에서 배웠다.
이 좌담 간담회는 약 두시
간이나 하였는데 지면관계로
요지만을 추려서 편집한 것
이니 참석하신 이들과 독자
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WCC를 통하여 國連에

韓國基督者들의 呼訴

이 간담회에 대하여 일본기
독교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
하고 있다.
서부독일과 함께 지금 세계
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한국유전문제는 어떻게 될것인
가 염려하는 제일 한국기독교
지도자들과 일본기독교지도자들
은 간담회를 열고 거기서 민
족적 양심의 절절한 호소를
들을 수가 있었다 이번 모임은
적은 대단히 적은 집회였으
나 조직적으로는 WCC와 I.M.
C를 통하여 국제연합에 기독교
교회의 호소로서 반영하게 된
것으로 주목된다.

이 교회의 부인회에는 약三十
명의 회원이 회장 남주애씨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모
든 조건이 가장 정비된 부인
회였다. 다만 교역자가 많게 시
가 때문에 활기가 적어보이는
사실은 유감천만이었다. 이를
을 기록하면서도 福洲教會들이
마음 아루게 생각된다.

까지던지 독립된 것이다 (三七
二四一지)는 말을 반복 강조
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독립
의 신념이 어떻게 배양 되었
다는 것을 이 책은 가르치고
있다. 오늘에 고조되고 있는
평화주의의 열기라도 철저하고
정당한 기독교인생관과 세계관
과 정의 의식(正義)과 구속
받은 자의 한계가 없이는 무
리없는 것에 불과할것인데 우
짜루의 이 책은 그 뿌리를
가르치고 있었다. 이 책을 읽
는자는 그의 진리주장에 대한
고집과 아울러 진리에 대한
경건 솔직한 태도를 배우기를
바라는 바이다.

한국측에서 참석하신 이들은
趙 夢淳 吳 允 光 田 榮 澤 趙 奉
國 李 正 植 (Y. M. O. A.) 趙
務 賢 高 永 植 朴 永 澤 阿 部
國 雄 久 布 白 久 阿 部 氏
간담회는 기도(三人)로
폐회하였다.

지지하게 되는 이유는 아메리
카人民이나 일본人民들로서는
올바른 이해(理解)를 못할것
이다. 이해하려면 한국의三八
線正統문제의 원인과 그후의
사정을 알려야 할것이다. 세계
대國들은 약소민족들에게 진정
한 해방을 주어야 한다. 우리
민족은 好戰적 속성이 아니다
이번 일은 오직 민족적 양심
의 호소라고 하였다.

世界聖書協會會議

세계에서二十五개국이 참가
하고있는 성서협회연맹에서는
六月五日부터 八일까지 독일
스투트가르트 상임위원회를 개회
하였는데 아세아에서 그 연맹
에 참가하고 있는 나라들 중
한국 필리핀 인도 라트비아
인도네시아 아세아상임위원회
대표는 인도 성서공회총무 마한
디와 일본사람 미야코다의
두사람인데 이번회의에는 마한
디 혼자 참가하였다.

(新約) 유 다 書

求 道 者

本書의 著者와 譯者 이 글 쓴
사람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설명이 많다. 그 중에 있
는대로 야고보의 형제인 유
다 즉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장로였던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
다면 유다는 주의 형제일것
이다 (太十三三三) 그는 이름
그대로 유대인이었고 역시
문학에 천재이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존중하게 생각하는
보수적인 정통주의자였다.

그는 舊約의 聖典의 소유자
로서 舊約의 聖典을 존중하
며 사도시대 이전의 아
담을 존중을 해지거나 舊約
을 문란케 하는 것을 싫어하
하였다. 그리고로 이단은 박
트기전에 없이어 버려지고
전례를 다하여 이단 속성의
선두에 나섰던 사람이었다.
이 글을 읽은 사람(독자)
들은 분명히 알수없으나 배
점으로 보아서 비드로우서가
완간 지방에 보낸것이 많
가 추상적으로 팔레스틴
은 예루살렘에 있었을 회합
어를 하는 유대인들에게 보
낸 것이었던듯 하고, 하는
학설이 그중에도 유비하다.

二記錄의 事情 이 글을 쓴
저자정은 三절에 '너희가 편
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면 차
에 상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
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한
말에서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믿음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하려 하였으
나 형편 사정이 변하여 전
통적인 신앙옹호에 분기하
는 권고의 편지를 쓸 필요
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것은
교회에 이단이나 침입하여 믿
는자의 신앙의 기초를 흔들
며 도덕생활을 문란케 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이 폐해를 없게된 저자는
노리의 전후를 가리지 않고
서두에서부터 통렬한 비난

공리를 그 지도자들에게 퍼
붓는 것이다.
저자는 이 위기에 대항하여
프러문제 보다 심천면에 주
력하였는데 구약의 아모스나
말라기과 같이 배드로우서와
같은 점이 많다. 그 어
조는 화산이 터지는듯한
불안정이 있었다. 전통에
불하는자를 찾고 불순한것을
타워 버려려는 기세다. 여
부분은 묵시문학 같기도하다
따라서 저자는 그 이단선전
때문에 불만 동요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화히 여기고 구
하려고 애쓰며 있다. 불합치
할라고 舊約의 聖典이
三著作年代와場所 이 글의 내
용으로 보아서 배드로우서와
비슷한 점은 같은 시대의
전후의 것이 아닌가 생각하
는데 배드로우서와 六十六
년이라고 하면 이 글은 六
十七八년 경에 쓴것으로 추
정하게 된다.
기록한 장소에 있어서도 이
말다할 증거가 없는데 그로
씨는 사마리아 대결한것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알파산드리아
부근이 아닐가 하는자도
있다 아니었을까 하는자도
있다 혹은 본래에 유대교적
성경도 있었하여 예루살렘부
근이 아닐가 하는 설명도
있다. 학정적인것은 없다.
四本書의 概略 서두에 의사가
있고 편지를 쓰게된 동기가
거스 스승에 대한 경계의
필요에 있었다고 하고 이단
자가 심한 말을것을 가르치
고 주의와 권면을 한 후에
송영으로 끝 마쳤다.
五本書의 內容 分析
1. 이사 말씀
2. 기록하는 동기
3. 순계의 말씀
4. 독자에게 권면
5. 송영
六本書의 評價 이 책은 적으나
그 시대문제를 생생하게
급한 점으로 경전에 드러와
서 격동하는 오늘에도 적지
않은 경고를 하는책이다

1	2
3	4
5	16
17	23
24	25

스주어에 맞추어 써서 對生 강건
루트는 여전히 지속하면서 對生
조장은 유선 이온보다도 對生 소동
으로 모여올라오는 것이다. 그것
은 "오스트리아강화 실험,
수상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암파를 한적히 었다. 그가
이것을 다? 그 송리의 최후
정리이다?"

시대를 잘 살피지 못함중에서
무언중이 간혹 이런 행동과
습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것을 이해를 못하고 정상의
길을 배개함으로 세 대사의
을 위한다는 것은 옳지마는
도로 하 시기에도 말을 맞추
고 눈치를 맞추어가지고 누구
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하는
분리적 그 작난을 일삼는다.
하면 공산주의를 치기는커녕
도로하 공산주의에게 공격을
당하고야말이 분명하다.
오도 우리가 어서 속히 이
러한 비를 하로바라 고치고
일시라도 속히 합동하여 조고
마한 남한에서만이 아니라 정의의
세로 재건하여 통일의를 완성을
보기로 하자.

『模 樣』

이라고 할것이고 이런 어루니
버스영화를 단편소설이 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 헨리-의 작품은 오늘날과
같은 번잡한 아메리카문화 시
대에 저들로 하여금 아메리카
의 창작 하였던 때를 회상하
게 하는 것이다. 때를 회상하
는 이 인생模樣에 있어서 제
하는 유-모어가 많고 그들의
각의한 인생들을 반성케 하는
점도 적지 아니하다. 종교적으

지않았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실적에도 모도부지런히 일
하는자들을 택하셨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따르기로
출발하였으니 뒤돌아보지말고
열심으로 가까이 따라갈것이다
우리는 말과 행실로서 예수를
증거하고 기쁜마음으로 시험이
를탈새 없도록 부지런히 따라
가자 그리하면 세상의 다른지
도자에게서 얻지 못할 참편안을
얻을수 있다. 권리나 돈으로
살수없는 참편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좋은 기회이니 배척 말고 청
함을 받고 날마다 예수를 가
까히 따라가라 그리하여야
짐을벗을수있고 참 편안과
원한 생명을 얻게될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와같은 불상
한 사람을 다 오라고 청하였
다. 얼마나 고맙고 기쁜소식인가
첫째로 우리는 청함을 받겠
으니 기쁜마음으로 갈것이다.
흔히 대통령이나 어떤 부자나
권세잡은자가 청한다면 영광으
로 생각하고 여러가지 선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달려갈것이다

로도 좋은 감상을 주는것이다
그다음은 다섯번째 이야기
또 재미 있다. 크리스마스
물을 준비하는 빈궁한 신가정
에 흔히 있을듯한 이야기다.
사랑은 자기의 것을 볼수있고
아니한다는 것을 볼수있고
후회함도 없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는 매정편이다. 그중 무
법해가 그치지않고 헛된와
없는 원한한데 갇혀있어서
크침이 깊은 점은 불맛도 있
는(영향)이다.
美國舊教徒三千餘萬名
昨年(一九五三年)에 백萬名이 증가
한데 비하면 一百萬七千四百
九十五명이 증가 되었다.
신부의 수는 四萬五千二百二
十二명인데 작년보다 죽은자
가 六百七十四명이나 있었을
에도 불구하고 七千六百三十三
이 증가 되었다.
수도사는 七千八百二十三명이
고 수녀는 十五萬八千九百四
十六명인데 이숫자도 二千九
十八명이 증가 되었다. 그 외
에 성인 세례자가 十一萬七千
八百三十三명이 있었다.

論 壇

基督教와 貧富問題 (二)

牧 師 嚴堯燮

이상에 열거한 사실들이 원
인이 되어 빈부의 문제는 그대
로 계속되어 오늘에까지 이른
것이다. 특히 현대의 빈부문제
란 생리적인 또는 정신적인 원
인에 의한것이 아니라 사회적
원인에 의한 문제만이 문
제이다. 그러나 사회적인 원인
만을 제거한다고 해서 빈부문
제가 전무 근절되리라 보는 기
대할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하나만을 중요시할것이
아니라 원부문제나 기하 모든
사회문제를 일괄적인 입장
에서 본지에서 논할것이다. 이
전제적인 입장에서 연구하며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 그러면
전제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러나 이 회담은 용이한것이
아니다. 역사가 오랜 근거를
가진 문제를 쉽게 말할수도없
고 동시에 쉽게 해결할수도없
다. 그러나 우리가 방입할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들 계속해야 할것이
다. 동시에 이 연구방법은 위
에서 말한대로 빈부가 생긴
원인을 철저히 과학적으로 연
구할때에 그 해결에 대한 방
법도 과학적인 방법이 생겨지
는것이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과학적방법으로 분석하며 연구
한 사람으로 공이 큰 사람은
칼라스이다. 그의 유명한 자
본(資本論)은 현대자본주의
사회경제 조정에 관한 분석적
인 연구는 그의 공헌이라고
말할수밖에 없다. 그는 자본이
라고 하는것을 잉여가치도
잉여노동에의한 착취의 축적
(蓄積)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사회제도를 바로 잡기위해서는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들이 일
차 단결하여 혁명을 일으키고
전정권을 노동자들이 잡아야한
다고 노동자들에게 호소하였다.
동시에 이 혁명세력이 될수있
는 자는 무엇일 자부 생각하는
인레리 총이 아니고 노동자대
중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혁
명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서는
맑스네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
본가에 대한 중오감을 대장사
했다. 이렇게 중오감이 대중화
하여 혁명을 일으킬때 그 혁

명론 잔인스러워진다. 맑스는
본래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
되면 몇 사람의 자본가만이 적
당고 모두가 그 자본가와 적
대적인 입장에 서면 원연적으
로 자기가 이상하는 공산사회
가 이루어지리라 믿었다. 이
러한 자연적인 합법적인 혁명
안정되는 부류의 비합법적
인 폭력적혁명을 단행할것을
승인하였다. 혁명에 대하여 맑
스는 다소 온건파라고 할수있
으나 소탈린은 무자비한 무정
을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서는
감행하는 급진파의 사람이라고
볼수있다. 결국 이러한 혁명은
원수를 낳는 복수행동이요 진
류전체의 행복을 위한 진실한
유리가 되지아할 사회는 빈한
자도 행복스러워지고 부한자
도 행복스러워질수있는 인류전체
의 행복이있을때 이 문제는
해결될것이다. 오늘날 같이 부
한자가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키는것을 무서워하고 이를
방지하기위해서는 공산당이 행
하는 마한가지의 방법으로 무
쟁을 전개한은 결국이 빈부문
제의 해결은 멀어지고 가난
한자는 중간에서 이용만 당하
고마는것이 사실이다.

聖 書 와 關 連
먼저 라는 부인은 신앙이
독실한 그리스도인 이더니 죽
을 때에 十三세 되는 아들에
게 한권의 책을 주면서 "나는
생할이 부족지 못하여 많은
재물을 남겨 주지 못하나 이
책을 네게 주니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하고 죽었다. 그 책을 받은
소년이 저 유명한 아부라함
리컨인데 그는 대통령이 된후
어떤날 말하기를 "내가 오늘
의 지위를 얻게된것은 어머니
의 주신 교훈대로 성경을 읽
었기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우
리는 여기서 시대적 차이는
있으나 그 한권의 책을 유산
대신으로 아들에게 남겨주
는 어머니의 독실한 신앙과 순종
하는 사람 아부라함 리컨의
위대성을 배울수 있는것이다.

그리움

小説

서벽종 (十八)

尹善道

외산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리 뜻은
멀고 멀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
울고 울고 가나
註. 외산-산은

그리-그리워하는
하고하고 하다-하다
뜻 멀리 고향에 있는 부
모를 그리워하는 차에 마친
기러기 한마리가 울고가는
소리엔 눈물이 난다.
李 壇

방안에 있는 책
들과 이별하였던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깊은 눈물지고
속타는 줄 모르니고
저 책을 남과 갈아
속타는 줄 모르니고
뜻 충신 이개가 어린
단조를 생각하고 울은
대 책을 제 마음에 비
한것이 아니라 제마음
속에서 비탄이다. 깊이
눈물지는 것은 알라도 속
얼마나 타는지 알길이
다 이것이다.
王 邦 衍

千萬里 머나 먼길에
고혼날 어이올고
내 마음 둘데 없어
넷 가에 앉았으니
있는셈입니다 美國의 停戰에
한 態度를 變更시키는 데 유
主義者가 奏效했다는 明료한
사실을 우리는 아니볼래야
니불수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에依하면 이危險한 境況이 만
일 이致命의 停戰으로 말미암
줄어진다면 미국을 포함한
자유세계를 根本적으로 離脫
할것입니다 數百萬의 자유인
자유를 잃은사람이나 할것없
는것은 미국이 鐵의장幕뒤에서
신음하는 諸民族을 해방시키는
使命에있고 자기네를 領導
할라는것입니다 停戰會談은 關
係捕虜에 系關의 調停만 남기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저 물도 내안과 같아
물어 발길 예도
註 고혼날 어이올고
뜻 충신 이개가 어린
단조를 생각하고 울은
대 책을 제 마음에 비
한것이 아니라 제마음
속에서 비탄이다. 깊이
눈물지는 것은 알라도 속
얼마나 타는지 알길이
다 이것이다.
宗 時 烈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독에서 북에서 (5)
태호와 봉주는 공경으로
태호와 봉주는 공경으로
태호와 봉주는 공경으로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나 우리親友가 다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
宗正이 한 國의 信